

연구원 소식

연구원에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지난 주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김재식 선생님입니다.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고전번역교육원 전주 분원에서 한문을 학습하신 분입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으로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인공지능 기반 개방형 한문 고서 번역 및 해석 지원 기술 개발(연구책임자 김건우 상임이사)" 사업에 함께 참여하시던 중 우리 연구원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재식 회원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고전학연구소 사업에서 호남권 지리지 번역 분야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회원의 날을 비롯해 다양하게 펼쳐질 연구원 대면 사업에서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하길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할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기자촌 재개발 지역 내 마을의 역사를 구술하실 수 있으신 회원께서도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책임진 사람 - 1951년 5월 9일

71년 전 내일,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사표를 던졌다. 일각에서 국부라 불리는 이승만과 함께 초대 부통령이었던 그는 온 집안이 독립운동에 나선 것으로 유명한 경주 이씨 집안 6형제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요즘 물가로 환산하면 천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처분한 후 압록강을 건넜고 이후 치열한 항일투쟁에 나섰다. 우리 역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진정으로 실천한 가문이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살아서 해방을 본 것은 5남이었던 성재 이시영이 유일했다.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버텨내고 해방을 맞았을 때 나이는 이미 일흔 여덟이었다. 이승만조차 성재 어른이라고 존대할 정도였고 다섯 형제를 이국 땅에 묻고 자신도 죽을 고생을 하고 온 처지였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청렴결백의 표상이었고, 이승만의 절대권력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선출된 대한민국 초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에 113표를 얻었으나 2차 선거에서 133표를 얻어 대한민국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시영은 1951년 5월 9일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직에서 사임한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국민방위군 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지원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한 부패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1950년 12월에서 1951년 2월 사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얼어 죽고 굶어죽은 이가 약 12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1951년 부산으로 피난해있던 국회에서 폭로되자 이승만 정권은 국방부장관 신성모를 사퇴시키는 것으로 무마하려했다.

이시영은 사건의 진상규명은커녕 은폐에 급급한 이승만을 보며 성명을 발표한다. 그의 성명서는 노정객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권력집단에 있던 자들을 향해 내뿜는 사자후로 가득 차 있었다.

“(중략) 나는 정부 수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관의 지위에 앉은 인재로서 그 적재가 적소에 배치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한데다가 탐관오리는 가는 곳마다 날뛰어 국민의 신망을 상실케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엄을 모독하여서 신생민국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며 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그러나 사람마다 이를 그르다하되 고칠 줄을 모르며 나쁘다 하되 바로잡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시비를 논하는 그 사람조차 관위에 앉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탁수오류에 휩쓸려 들어가고 마니 누가 참으로 애국자인지 나로서는 흑백과 옥석을 가릴 도리가 없다. 더구나 그렇듯 관의 기울이 흐리고 민막(民瘼)이 어지러운 것을 목도하면서도 워낙 무위무능 아니하지 못하게 된 나인지라 속수무책에 수수방관할 따름이니 내 어찌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나인지라. 이번에 결연코 대한민국 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대통령에게 보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며 아울러 국민들 앞에 과거 3년 동안 아무 업적과 공헌이 없었음을 사과하는 동시에 일개 포의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고락과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한다.“

전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투쟁을 했고, 풍찬노숙하며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자신의 형제들이 모두 죽어가며 이루고자 한 해방된 조국. 그나마 반쪽으로 갈라져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자신이 부통령을 맡고 있는 남쪽의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청년들을 지켜주는커녕 원혼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을 먹이고 입힐 돈은 기생들의 치마폭과 장군들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래놓고도 패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판판이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이었으니 그가 느꼈을 실망과 분노를 어찌 다 짐작할 수 있을까.

이시영이 부통령을 그만둔 순간부터 그의 가족들은 다시금 일제강점기 때와 같은 풍찬노숙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시영의 둘째 아들 이규열은 피난지 부산에서 병으로 숨을 거뒀고 그 딸은 소아마비에 걸려 걸을 수 없게 됐다.

1953년 4월 17일 이시영은 “완전통일의 그날을 못보고 눈 감으니 통한스럽다.”는 유언을 남기고 서거하였다.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른 뒤에도 가족들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서울로 이사 온 뒤 스무 번 넘게 집을 옮기며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다. 당시 명문학교였던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손자는 생활고로 대학에 등록할 수 없었다.

71년 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남긴 사자후를 다시 생각해 본다.

“사람마다 이를 그르다하되 고칠 줄을 모르며 나쁘다 하되 바로잡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시비를 논하는 그 사람조차 관위에 앉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탁수오류에 휩쓸려 들어가고 마니 누가 참으로 애국자인지 나로서는 흑백과 옥석을 가릴 도리가 없다.”

